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효강 종령 법어

오늘은 2556년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명과 탐욕에 찌든 우리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드리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열반에 드신지 아흔 아흔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의 범정치는 날로 치성하여 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날로 커지면서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정이 주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진 자의 배분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 제도로는 보완하기 어려운 객관한 현실을 가진 자의 자비와 사랑으로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답게 꾸민대 앞정삼시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기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총령 효강 합창

음아나반메돌.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지정 통리원장 봉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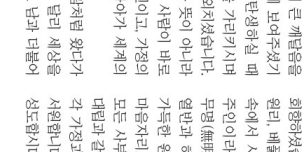
불자 및 고도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엄광명이 가득하길기원합니다. 오늘날은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든 중생이 부처님같이 절대 광명한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셨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류가 지향하여야 할 공동체 삶의

모범을 제시하셨으며 길에서 떠나나 길에서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어떠한 사상과 제도, 권력에 의해 구속되거나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 날을 생명 해탈의 날이요, 인간존엄의 대선행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인류가 지향하여야 할 공동체 삶의 모범을 제시하셨으며 길에서 떠나나 길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체의 원리, 배분과 나눔이 있어야 하는 공존(共存)의 법칙을 대승 속에서 실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만의 중생을 외면하지 말고, 무명(無明)과 어기심(無記心)에서 허락하는 중생을 부처님 속에서 지혜와 해탈의 세계로 제도하는 일이다. 불화와 중으로 가득한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자비(慈悲)와 은혜(恩惠)의 마음자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실천하고, 대법과 갈등의 질곡을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인도하시고, 각 가정과 이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지정 합창

음아나반메돌.

새로운 종풍운동

불제, 정제(淨制)는 부처님 재신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셋째, 줄거리는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불교총지중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인밀교 총지도당에서
총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도심사원과 엄격한 계율로 종교의 나라를 편 대만불교 총지중 승단 대만불교 연수



불교총지중은 통리원 주관으로 전국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총계강동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강원 홍천 대만불교회관에서 대만불교연수를 실시했다. 1차 연수단(단장 지성 통리

불법을 통한 세계평화와 화합을 다짐

제3차 세계불교포럼 홍콩대회 봉행



세계 40개국의 불교 지도자와 전문가들 1,000여명이 불법을 통한 세계평화와 화합을 모색하기 위해 홍콩에 모였다.

중국불교협회(회장 추안인스님)와 홍콩불교연합회(회장 쥬에광스님),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회장 왕조안)는 4월 26일 홍콩 체육관에서 제3차 세계불교포럼 개막식을 봉행했다. 불교총지종 지성 통리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리 무원스님 등 한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막식은 헌향, 헌화, 인사말, 개막 이벤트, 축사, 세계적인 불자가수 왕페이의 '반야심경노래' 공연, 폐막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이 대독한 개막식 축사를 통해 만공스님의 세계일화(世界一花) 가르침을 소개하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불교적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또한 오는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WFB한국대회에 참가자들을 초청하였다.

홍콩불교연합회장 쥬에광(覺光)스님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갈등들을 해소하고 세계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일은 이 시대 불자들의 사명이자 과제"

라며 "세계평화와 번영, 화합을 위해 전 세계 불자들의 지혜를 모아나가지자"고 당부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왕조안(王作安) 총화종교문화교류협회장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UN은 전 세계가 당면한 각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화합과 평화를 강조하는 불교적 가르침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불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막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2시부터 분과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분과토론은 △불교융합의 현대적인 모델 △생각속에서 불교의 응용 △불전(佛典)의 정리, 보호, 번역의 현대적인 해석 △불교교육의 전통, 현상 및 미래 발전 △불교자신의 이념과 실천 △불교유적과 빚질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 △글로벌시대 남북전불교의 발전과 사명 등 7가지 소주제로 나눠 진행되었다. 또한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장 영담스님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세칭(學誠)스님, 한중일국제불교교류협회장 고바야시 류소스님 등이 '황금유대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한중일 TV토론을 갖고 한중일 3국 간의 우호선린 관계를 강화해 나가지는데 뜻을 같이 했다.

▲ 사진협조= 밀교신문

종립 동해중 총동창회장 이진복 국회의원

부산 동래구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재선 성공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장 이진복 국회의원이 지난 4·11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이진복 동창회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51%를 득표 당선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53.42%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이진복 동창회장은 종립동해중학교

와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민선 3기 동래 구청장과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총동창회는 이진복 회장의 당선은 동해중학교를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학교와 불교발전에 밀기위가 되리라 기대했다.

김종열 기자

종단 의전서열 재조정 및 연등회 준비 사항 점검

불기 2556년 종단협의회 제2차 이사회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4월 18일 오후2시 한국불교신문회관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총지종 총무원장 인선정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및 회원 종단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세계

불교포럼 참석, 한일불교대회 준비, 연등회 준비보고, 의전서열 조정, 유사단체가입금지 독려, 종교계 과세문제, 여수박람회와 WFB 국제도우회 한국대회 준비 등에 관한 보고와 토의가 있었다.

특히 그 동안 관례화된 종단 의전 서열 문제는 회비 납부와 이사회 및 행사 참석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였다. 총지종 인선 총무원장은 발언을 통해 "종단의 위상은 단순히 종단경 기입 순서나, 회비납부 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회원 종단이 얼마나 불교계에서 대화적 활동을 통해 불법 호포를 하는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전 서열을 정하는 엄격한 원칙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회원 종단들은 공감하였고,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조계종에서 운영 중인 테스크포스 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도우회는 가입 종단이 아니더라도 입재자의 자격으로 회원종단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준비 위원회가 마련하였다.

한국불교문화회관= 김종열 기자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부처님오신날 행사 준비로 전국이 열기로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 날 행사 준비로 전국이 떠들썩거리고 있다. 불족위원회는 급근도 불족행사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의 불족표어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Peace to our Mind, Happiness to our World)'을 확정하였다. 전국에서 공모된 363건의 공모작 중,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안호석씨의 표어를 선정했다. 이번 표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응보살 정신으로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불족기단 포스터와 홍보물에 게재된다.

불족위원회는 부처님오신 날 거리행사 및 연등회 일정을 확정하였다. '전통등전'은 5월 18-28일 봉은사 및 조계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아를림마당은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국대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동국대에서

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연등행렬이 이어지며, 20일 정오에서 저녁 7시까지에는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 연등놀이 등이 펼쳐진다. 28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사찰에서 법요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도 불족 열기가 뜨겁다. 부산 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부산지역 불족행사는 지난 2월 13일 코모도호텔에서 '2012년 부산연등족제 결성법회'를 열고, 일찌

감치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연합회 회장 정여스님과 총지종 정각사 주교 대원정사를 비롯한 각종단 대표자와 학남식 부산시장등 사부대중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2월 10부터 18일까지 전통등 감상회를 열고 행진등과 장엄등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부산 지역불자들을 대상으로 연등족제 표어를 공모하여 총54건 중 최희식 불자의 '연등처럼 밝은세상 연등처럼 맑은 부산'을 당

선작으로 선정하였다. 5월 4일(금) 오후6시30분 부산역 광장에서 '불족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2일에서 21일까지 용두산 공원일원에서 '용두산 연등문화제'를 열고, 5월19일에서 20일까지 부산연등족제를 구덕운동장과 용두산 공원 일원에서 연다.

〈3면에 계속〉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천사	이희권	4/3	10,000
개천사	강순식	4/17	10,000
관성사	박현숙	3/27	10,000
관성사	황성녀	3/29	10,000
관음사	신박심	4/23	10,000
기로	정법계	4/5	10,000
기로	해정	4/5	10,000
기로	대관	4/23	10,000
기로	대행	4/23	10,000
기로	밀공정	4/23	10,000
기로	법수원	4/23	10,000
기로	법장화	4/23	10,000
기로	법지원	4/23	10,000
기로	불멸심	4/23	10,000
기로	사홍화	4/23	10,000
기로	상지화	4/23	10,000
기로	수증원	4/23	10,000
기로	총지화	4/23	10,000
단음사	천공	4/5	4,000

단음사	법연지	4/18	10,000
덕화사	하순옥	4/17	5,000
덕화사	시정	4/23	10,000
덕화사	원만원	4/23	10,000
만보사	정덕순	3/27	10,000
밀인사	정정희	3/29	5,000
밀인사	복지원	3/29	10,000
밀인사	이연수	4/15	10,000
밀인사	원당	4/15	10,000
밀인사	모심해	4/15	10,000
벽통사	양지현	3/28	10,000
벽통사	양정현	3/28	10,000
벽통사	무명씨	4/6	10,000
벽통사	무명씨	4/6	10,000
선립사	정향식	4/16	10,000
선립사	심지장	4/16	10,000
선립사	정복지	4/16	10,000
성화사	무명씨	4/16	80,000
수인사	김봉기	3/26	10,000

수인사	장영택	4/2	50,000
수인사	황보기문	4/18	20,000
승천사	원봉	4/19	10,000
승천사	지선행	4/19	10,000
지법사	진여행	4/6	10,000
실보사	이순옥	4/2	10,000
실보사	이순옥	4/20	10,000
운천사	대성화	4/10	30,000
정각사	이정선	3/30	5,000
정각사	김문수	4/16	10,000
정각사	구정희	4/18	20,000
지인사	이형자	4/12	10,000
지인사	송호재	4/19	10,000
지인사	허성동	4/25	30,000
총지사	법등	4/20	20,000
해정사	김경미	3/28	20,000
화음사	송영근	4/6	10,000
화음사	박옥자	4/20	10,000
홍곡사	지정	4/19	20,000

최순전	3/28	20,000
이혜원	3/30	5,000
무명씨	4/6	10,000
박동희	4/18	10,000
원정원	4/18	50,000
유승태	4/24	10,000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송하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총지종 총기41년 춘계 승단총회 개최

- 중앙총회의원 보선, 스승 정복 시연



총지종은 총기41년 춘계 승단총회를 4월 25일 종천에서 개최했다. 요강 종련 예하의 주제로 열린 승단총회는 지성 통리원장을 대신해 인선 총무부장의 사회로 열렸다. 이번 승단 총회에서는 총기 40년 예 결산 수치 보고, 중앙총회의원 보선, 스승 정복 복식 시연 및 종단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중앙총회의원 보선에서는 종단 4년 이상 근속자 및 5급 이상 후보 자격이 있는 스승을 대상으로 투표로 실시하였다. 이날 선거에서는 범법사 해인정 전수와

홍국사 주교 지정 정사가 총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잔여임기인 총기 42년 6월까지이다.

이어 총지종 스승들의 일상복 복식 제정을 위해 종단이 만든 예복 복식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이 있었다. 이번에 예비적으로 선보인 복식은 두 종류로 정사들의 정복으로 전통 승복 형 두루마기 한 종류와 전수들의 원피스 형 한 종류가 선을 보였다. 통리원은 이번 총회를 통해 모아진 스승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종지와 교리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 복식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요강 종련 예하는 총평을 통해 "오늘 선출 되신 중앙총회의원들은 종단의 주요 사업을 섬의 결정 하는 시급성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의 종단 사업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며 승단 총회의 결과가 통리원 업무에 잘 반영되기를 서원했다.

홍천=김종열 기자

총지종 장례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불교계 상조 벤치 마킹 및 종지에 맞는 운영 매뉴얼 개발



불교 총지종은 종단의 전통적인 의례와 종지 종풍에 맞는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해 총지종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4월 24일 종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통리원이 추천한 건화사 목경 주교, 국광사 안성 주교, 개천사 우인 주교, 밀인사 원당 주교, 홍국사 지정 주교, 운천사 도현 주교, 벽룡사 법일 주교, 만보사 승원 주교, 정각사 범상 정사 등 총 9명이 창립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위원들은 현재 종단에서 운영 중인 효사랑 상조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총지종 종지 종풍에 맞는 장례 예법과 의례, 법식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종단 로고를 활용한 장의용품 제작과 장의기간 전 일정을 유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불공 일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각 사원 교도와

합창단으로 불공팀을 구성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장례위원회는 기존의 불교계 상조의 벤치 마킹과 홍보용 팸플릿 제작, 운영매뉴얼 작성등으로 종단 장의문화의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번 장례위원회 의결사항은 통리원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홍천= 김종열 기자

밀교연구소, 「49재 천도 법문과 발원문」

제1집 발간

선도수생(善導修生)의 경전 법문과 극락왕생 발원



총지종 밀교연구소(법경 정사)는 종단의 49재 천도불공의식에 사용할 「49재 천도 법문과 발원문(제1집)」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주로 49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초재부터 칠칠재까지 각 재의 의미와 설명을 함께 곁들인 경전 법문과 발원문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 동안 49재에 필요한 법문과 발원문을 다양하게 마련해 달라는 '총재토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제1집을 발간으로 지역 사원 스승들의 불공 집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9재 이외에 일반 천도재불공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법문과 발원문을 추가하였다.

이번 책자는 방자화 위한 법문 뿐만 아니라 유족이나 동참대중들에게도 전하는 법문을 담고 있어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생전에 미리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예수재'의 내용도 담고 있다.

배공주 교무

'어울림 한마당' 5월 19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에서

(2면에 이어)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 주관으로 4월 21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봉축기원등 점등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각 종단의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평화와 민족화합을 서

원했다. 전북지역은 이번 점등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간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청도 유등제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늘과 물에는 꽃이! 땅에는 신명·흥·환희심!'을 슬로건으로 내건 청도 유등제는 4월 20~23일 청도군 화양읍 유등연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만여 개의 장영 등이 유등연지 주변을 밝혔다. 또한 청도 팔경 중 하나인 유천여화를 점막한 '유호장대 여화놀이'가 밤하늘과 연못 위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봉축행사는 예년에 비해 전통 문화와의 접목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연등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첫 행사라 불자들의 관심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적 축제에 승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김종열 기자

▶ 봉축 주요 행사 일정 ◀

내 용 _ 서울시청앞 봉축등 점등식
일 시 _ 5월 7일 오후 7시
장 소 _ 서울시청앞 광장

내 용 _ 전통등 전시회
일 시 _ 5월 18~28일
장 소 _ 봉은사, 조계사

내 용 _ 어울림 한마당
일 시 _ 5월 19일 오후 4시 30분
장 소 _ 동국대 운동장

내 용 _ 연등행렬
일 시 _ 5월 19일 저녁 7시
장 소 _ 동대문- 종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관성사

주 교: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 교: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 교: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룡사

주 교: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정
☎ 02-889-0211

실지사

주 교: 전수 연등원
☎ 02-983-1492

정심사

주 교: 전수 진일심
☎ 02-433-0374

지인사

주 교: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시법사

주 교: 전수 환수원
☎ 032-522-7684

총지사

주 교: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특별기고

총지중 승단 대만불교연수의 의미와 과제



화령
(중앙교육원장)

본 종단에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에 걸쳐 현지 승직자 모두가 1진과 2진으로 나누어 4박 5일 동안 대만 견학을 다녀왔다. 이 행사는 교육원에서 6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으로 종단의 여건상 실행이 미루어져 오다가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결정한 거사였다. 나는 88년도에 대만에 처음 발을 들여 놓았지만 그 때는 불교에 대한 안목이 뜨이지를 알아 간파했지만 그 이후 대만에 잠시 머물렀던 인연으로 수 차례 대만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 대만 불교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서 반드시 대만 불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그치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만 불교의 발전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종단의 많은 승직자들이 견학을 통하여 현장을 직접 봄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도록 통리원에 꾸준히 요청을 해 왔던 것이 이번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번 견학에는 극소수의 몇 사람만 피지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전 승직자가 무사히 일정을 소화하고 견문을 넓히게 된 것은 우리 종단으로서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

종단의 집체된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물 안 개구리식의 좁은 시야를 탈피하여 종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 참여한 대부분의 승직자들은



팔복상대의 견식을 지니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보다 앞서서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불교의 흥포에 매진하고 있는 대만 불교를 현장에서 보고 느낌으로써 종단발전을 위한 우리의 각오가 한 층 다져졌기를 바란다.

원래 대만 불교는 미약하기 짝이 없는 열악한 풍토에서 몇몇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흥성을 가져왔다. 장개시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오면서 기독교 집안인 부인 송미령 여사의 영향으로 모든 정책에서 기독교에 우선권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역전되어 기독교 인들은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가 부처님 오신날 보다 먼저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우리의 비웃다. 대만의 많은 불자들, 특히 성운대사를 위시한 영향력 있는 불교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불탄일이 제정된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라고 하지만 내실은 대만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보다 훨씬 더 견실하다. 한국 불교 관계자들은 대만불교를 방문하면서



현재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치고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열마만한 자기희생과 노력이 따랐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만 남부의 한 촌락을 가꾸어 불광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불광사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성운대사의 명철한 리더쉽과 창의적 정신, 그리고 자기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의 불광산 자리에 절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귀신도 살지 못할 이곳에 절을 왜 짓느냐고 하자

성운대사는 귀신은 살지 못할지라도 부처님과 인간은 머물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불광산을 이룩했던 것이다. 오늘의 불광산이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팍과 정성이 깃들여있었는지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많은 방문자들은 오늘의 불광산, 혹은 중대선사나 법고산사 등의 웅대한 절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졌을까?

이번 견학을 계기로 우리 종단도 진정한 변화에 눈떠야 할 것이다. 종단 발전은 승직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최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자신의 현 상태(불교지도자다운 위와 언어, 거동 및



안내자의 말이다. 우리 종단의 승직자들은 행여 대만불교의 웅장하고 화려한 절모습만 보고 감탄할 뿐 거기에 깃든 진취적 정신을 간파하지나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불광산 뿐만 아니라 자재공덕회의 철저한 봉사정신, 중대선사의 우람한 현대식 가람 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거기에 깃든 정신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행여나 주눅부터 들지 않았기를 바란다. 잠깐의 가람의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그곳의 승직자나 신도 모두가 복자이나 거동, 언어에서 잠엄한 위의를 갖추고 불자다운

불교적 소양 등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점검하면서 그들의 발전 요인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도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우리 종단도 틀림없이 그들 못지않은 세계적인 종단으로 비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견학이 일시적인 견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자기 반성 위에서 종단 발전의 새 활로를 찾는다면 종단으로서 많은 경비를 소모한 보람이 거두어질 것이고 나로서도 무한한 기쁨이 될 것이다.

진리의 여율

■ 멸하지 않는 법의 성품

부처님의 제자 카사파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법의 성품은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의 성품이란 곧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있던 것이 없어진다면 몸은 어떻게

존재하며, 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에 법의 성품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법의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카사파, 너는 없어지는 것을 법의 성품이라고 하지마라. 법의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래의 경지는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으로는 알 수

없다. 여래의 몸을 멸여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여래는 어느 곳에 머무르며, 어디로 다니며, 어디서 보며, 어디서 즐거워하느냐고 묻지마라. 여래의 법신(法身)과 여러 가지 방편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승을 받들어 수행하면서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다르지도 무상하지도 않으며 바뀔 수도 없다. 만약 이 세가지 법에 대해서 다르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는 청정한 삼보에 의지하지 못하며, 금지된 계행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는 성문이나

연각의 보리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여래의 법신과 방편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면 곧 귀의할 곳이 있을 것이다. 나무가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다. 여래도 그와 같아서 영원한 법이 있으므로 귀의할 곳이 있어 무상하지 않다. 만약 여래가 무상하다면 여래는 천상이나 인간의 귀의할 대가 아니다." "부처님, 어둠 속에서는 나무는 있어도 그 그림자는 없습니까." "카사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여래는 그와 같이 그 성품은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혜가 없는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는 나무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범부들이 여래의 열반을 보고 여래는 무상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 여래를 법보(法寶)나 승보(僧寶)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귀의할 곳이 못할 것이다."

《열반경 정수품》

정리: 최영아 원원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정각사

주 교: 정사대 원
전수 정인화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단향사

주 교: 정사경 원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정사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전수 묘 흥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정사 원 송
전수 인법계
☎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정사지 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정사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정사도 현
전수 자인행
☎ 055-223-2021

일상사

기초승: 수 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정사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부산·경남 교구 일동



스승의 사명을 되새기며 불퇴전의 각오로 수행과 교화에 임하자

전국의 스승님 반갑습니다. 매년 강공에서 종령으로 청신교육을 하다보면, 매년 딱딱한 말들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법통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조금의 불편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대만의 불교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녀오신 몇 분들을 만나 보았는데, 가보니 정말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더라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종단이 큰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감행한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해외 나들이가 아니라 진정한 연수였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대만 역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대승불교권에 속합니다. 요즘은 대만불교는 눈 밝은 승적자들의 인도로 현대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교세가 날로 발전하여 특히 기독교가 범접할 수 없는 위치를 이루었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교도에서 열린 한종일 불교대회의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바로는 제일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곳이 중국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불자라 할 정도로 가히 국교라 할 만한 곳인데, 승적자들의 계율이 바로 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철저히 계율을 지키는 것이 성도하는 것이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합니다. 그만큼 예의를 숭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가정으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예절이나 공동체덕은 날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들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면 길을가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하는 개인주의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만연수를 보고 오신 것 중에서 특히

북지부에는 많은 투지와 노력을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웃 종교인 기독교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나라와 관공사에서 짓는 사회복지기관의 90%가 기독교 계열에서 운영한다 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인 사성법과 자비회사만이라도 잘 실천했다면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은 더 앞 당겨졌을 겁니다. 또 한가지 대만 얘기를 덧붙이자면 스님들의 철저한 계행과 사원의 군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율력을 숭신수법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적이었습니다. 특히 불광사의 남명법원의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30대 비구니 스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승적자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손님을 맞을 때 사원의 인상을 좌우하는 작은 것부터 직접 챙기고, 소임자들이 예의바르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도나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불교의 현실과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번 연수를 다녀와 배우고, 체득한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령의 소임을 맡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종단과 우리 불교가 뭐가 달라져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종조이신 원정 대성사께서는 수행이라는 것은 장난이나

종조법설집 P.3 『스승의 사명』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화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하고 따라서 종단의 성쇠를 좌우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교역에 초연하여야하며 먼저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지표로서 생활 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해의 영역에도 굴복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지조 있고 정예로 투철한 도법적인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교도들은 그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복건이 될 것이고, 일반이 흠모하여 교화는 날마다 총망하고 부처님과 일체중생이 다 가호할 것이다. 세속 사람들이라도 수양 있는 지성인이란 인생관이 서있고 생의 가치를 확립코자 하기를 하물며 중생을 제도하는 성직자로서 이러한 주관이 없이 어찌 남을 제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류평화를 위한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대승보살행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락을 겪으면서 그것을 소재로 인격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수행이기 때문에 오상성인의 불퇴전의 각오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첨령정직하고 스승을 잘 받들어 행하면 다른 자적이 여간 부족하더라도 교화가 잘 될 것이다. 종단은 민주주의나 어떠한 법의 전문보다도 부처님이 교시한 법과 계율에 입각하여 사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총망함을 기할 수가 있다.

헌신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저야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내 자신이 스승과 뒷사람을 경멸하고 대항하면서 어찌 나의 아랫사람과 교도들이 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과법을

무시하는 사건이니 내가 스승을 경만한 것이 곧 반영되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 사회 또는 한 교단이 총망하려면 그 지도자 중에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고급이 일반이므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생은 무상하나 법은 멸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전변하나 진리는 영원하며, 재물은 소유에 없애지는 것이지만 명예와 인격과 덕망은 영원불멸하는 것이니, 이것을 잘 체득하여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익을 위하고 자기행편이나 자기교화에만 집착하기보다도 종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세워가는 대아적인 위치에서 현재정화에 사명감을 가지고 된 것은 정진으로서 종단의 유구한 발전과 세계평화의 결실을 거두어서 우리 총지종의 입교 개종의 청신이 중의에 빛나고 세계만방에 불일이 중취하도록 하는데 훌륭한 역군이 될 것을 서원하여 마지않는다.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시기, 백일 불공을 예사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승적자들이 과연 그 어른처럼 내 자신이 수행 정진에 열심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단의 승패가 바로 우리의 수행력에 달려있습니다. 절 잘 짓고 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수행력의 증진이 앞서야 합니다. 종단의 초창기에 말씀 들어보면 승단의 율직임이 정말로 일사불란했습니다. 특히 강공 중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모두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불공과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때 강공 후에는 지혜가 생기는 방편도 절로 우리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종조님의 법설집에 남긴 스승의 사명을 오늘 되새기면서 청신교육을 하려합니다.

오늘 새로운 각오로 우리는 스승으로서 사명을 다시 새기고자, 종조법설집 『스승의 사명』을 같이 낭독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세간교역에 초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가 스승의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스승을 바로 세우는 근간입니다. 스승은 이것 만 바로 서면 교도들은 절로 따라온다 했습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둘째로, 근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회사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종법에 의하면 스승님들은 이공을 받으신 백이로 회사를 하고, 교도들은 십일로 회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때에 따라 차지, 정지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밀교에 입교했는데 8776입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진각종을 이끌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던 한 각자님이 여러 사정을 하소연하자, 회사법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각자님 십일법을 한번 해보세요. 각자님 사업의

전 대상의 100분의1을 때 회사를 하면 십일법이 됩니다.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 가을에 전 수확의 현금화해서 100분의 5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스승들은 수행의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그를 통해 증득한 법연을 소재로 증생구제에 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승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하여야 합니다. 스승은 교도들의 거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승과 선배들을 잘 따르고, 존경으로 공경하면 교도들은 자연히 스승의 모습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초기 승단에서부터 지켜오던 가장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 반성하는 자리가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요즘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세상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 총선에 투표하러 갔더니, 우리나라에 정당이 참 많더군요. 그 만큼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겠지요. 종조법에서는 세상의 어떤 법보다 부처님법이 앞선다 하셨습니다. 불법을 증득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립 없는 대 자유를 증득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법입니다. 불법을 바탕으로 계율을 세우고 스승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 종단의 앞날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 총지종을 세우신 원정 대성사께서 우리에게 교시하신 『스승의 사명』을 되새기고, 총지종의 앞날을 다시 여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불퇴전의 각오로 수행과 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충기 41년 4월 24일
불교 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건 화 사

주 교: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54-761-2466

개 천 사

주 교: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3-425-7910

국 광 사

주 교: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772-8776

단 음 사

주 교: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 립 사

주 교: 전수 심 지장
기로스승: 보 원
☎ 054-261-0310

수 계 사

기로스승: 안 주 화
☎ 054-745-5207

수 인 사

주 교: 정사 지 공
전수 지희심
☎ 054-247-7613

승 천 사

기로스승: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제 석 사

주 교: 전수 행 원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불교총지종 대만불교연수 동행 취재기



4월 9일

불교총지종 대만불교연수단 1차 3명(단장: 지성 통리원장)은 통리원 2층 반야실로 모였었다. 총지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대만 불교연수의 사전 미팅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인옥(국제불광회 한국 사무 부총장) 선생의 일정 소개와 함께 대만의 불교 현황과 규모에 대한 간략적인 브리핑을 받았다.

지성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는 관불과는 확실히 다른 성격의 여행입니다. 세계불교계에서 그 위치를 확실히 굳혀가는 대만 불교의 현실을 둘러보고 종단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해야 합니다. 종령님께서도 특별히 몇 가지의 과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한발 앞

선 방편으로 조직적 발전을 이룬 대만불교의 장점을 잘 배워오기를 당부했다. 또한 연수를 끝내는 시점에 주어진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다. '며 연수의 주와 당부'를 전했다.

4월10일

오전 8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 모인 제1차 연수단은 해외로 떠난다는 설렘 보다는 연수 일정을 잘 소화 할지 모두가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이전에 종단을 대표하여 불교계 공동으로 참가했던 해외 행사와는 달리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는 긴장감은 노소를 떠나 모두에게 공통되는 느낌이다.

발 빠른 교부들의 안내로 무사히 짐을 부치고, 출국장을 빠져 나와 탑승구로 향했다. 예정에는 중화항공편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항공사의 사정으로 제후사인 대한항공편을 편을 탑승했다. 부처님의 작은 배려일까? 총지종 연수단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우리나라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신 걸까? 모두들 부처님의 가지력이라 믿고 먼 여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기내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으로 점심공양을 대신하고, 예정된 시간인 현지시간 12시 정각에 타이베이 타오원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우리의 인원과 김포공항의 규모가 워낙 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지방의 작은 공항에 내리는 느낌이었다. 한때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대만의 국부인 '장제스' 공항으로 불리던 중화민국 최고의 관문이었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은 공사 중이라 임시 칸막이로 막혀있었다. 우리나라 지하철 역 공사 현장의 느낌을 여기서 왜 받는 걸까? 공항을 나서자 숨이 턱 막혔다. 역시 더운 지역이었다. 대만의 북부 지역인 타이베이에서 이리 더우면 남부에 위치한 불광산사, 가오슝 지역의 날씨에 완전한 열대의 기후를 맞볼 것 같다. 그래도 이국이라는 설렘이 앞선다.

현지 가이드가 마련한 관광버스에 올라 첫 방문 사찰인 타이오원의 불광산사 소속 금광명사(금광명사)로 이동했다. 중간 중간 야자수도 보이고, 우리의 지방 마을로 향하는 느낌이다. 금광명사는 불광산사의 타이페이 지역 거점 사찰로 지역 주민의 교육과 수행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하에 건립되었다.

사찰에 도착하자 사원의 주지스님이 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사원의 규모가 크다. 타이완의 규모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하면 크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륙에서 온 스승을 모셔서인가?의문이 꼬리를 문다. 정방형으로 가운데 중정을 두고, 정면에 대웅보전을 둔 콘크리트 지어진 4층짜리 건물이다.

회랑을 끼고 양옆으로 교실들과 활동 공간들이 들어서있다. 먼저 대웅전에 들러 참배를 드렸다. 육식으로 조성된 본존은 언 듯 보아 대륙의 운강이나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의 상모를 연상시킨다. 좌상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례가 조금은 안 맞아 보인다. 우리 석굴암 부처님의 완벽 한 비례가 눈에 띄어서 인가 어색하다. 이인옥 선생의 통역으로 금광명사의 교육 시스템과 지역에 서의 역할 등을 안내받고, 사원 주변을 둘러보았다.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단지 한 점 찾아볼 수 없었다.

대웅전의 벽면에는 이 사원을 건립 할 당시 모연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타일에 새겨져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사원 장건비에 빼곡하게 이름을 새겨 넣었을 법한데, 발상이 특이하다. 전체적인 느낌은 현대적이지만 정감함을 잃지 않은 도심 전통사원의 모습이었다. 주지스님과 자원 봉사자들의 상냥한 미소를 뒤로하고 연수단은 두 번째 방문 사원인 불광산 타이페이 도량으로 차를 달랐다.



타이페이 반화진 송룡(松龍)로 알려진 타이페이도량(佛光山臺北道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가 건물이다. 총 10여층 정도로 보이는 건물의 입구 층에는 패밀리레스토랑이 자리했다. 총 6개 층을 사용 중이었다. 먼저 법당에 들러 참배부터 올랐다. 이곳 주전은 여래전으로 다섯 분의 부처님을 모셨다.

도심 사원이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법당 장엄에 많은 정성을 쏟은 공력이 느껴졌다. 법당 앞으로는 불교용품점이 들어있다. 이곳은 복합 기능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건물을 한 층씩 매입하여 위성방송국, 국제불광회본부, 미술관, 교육공간 등을 배치했다.

불광산사는 일간신문과 위성방송국을 운영 중이다. 일간 인간복보(人間福報)는 타이페이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중화 항공 기내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 신문은 사건, 사고 위주의 기사를 탈피해, 생활 속의 미담 등을 주로 소개해 따뜻한 정을 전하는 신문으로 유명하다. 위성 방송은 24시간 전파를 쏜다. 주로 법문, 미담, 전통문화, 다큐멘터리 등을 편성한다. 간혹 불교와 관련된 드라마를 편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광고가 없다. 운영비 전액을 불광산 신도들의 보시로 운영 된다. 광고가 없다면 그만큼 편성이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회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철저히 '복'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성운대사가 창립한 불광산사는 대만을 대표하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에서 발행하는 불교전문지

위드다르마는 진리의 말씀을 울림이 전하는 길잡이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드다르마

WITH DHARMA
불교전문지

2012. 5(통권 103호) 표지
온노미에 행복을 전하는 경사스런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Contents 5. 2012

[부처님오신날 특집]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동물이..
불고이야기. 무연대자, 동체대비, 화평봉사
수행이야기. 매사에 양쪽을 다 살펴야 한다. 성운대사
[태마기회] 새로운 삶을 위한 참회, 보살님
진언수행의길, 오대서원, 불경정사
[기획연재] 용과 뱀이 함께 사는 곳, 원철스님
만다라세상. 바리는 연승, 지장정사
마음의등불. 파리가 불경을 두드려다 신한
행복찾기. 불광산사에서 불어오는 바람, 보연전수
차랑기소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동물이야기, 엘리제
씨앗만땅. 시간
빠리랑경건이. 여래는 침착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의 길. 봄을 곁여 보정
아주특별한신물.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달라야비
이달의경건. 삼세인과경
지혜의도막.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관'
디딤돌. 중생구제, 전법.. 말의 성전은 이제 그만..정통기
함께보는 불교미술 중에서

★ 담고 싶은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보내실 곳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총지종 위드다르마 편집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전화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이 창종 이후 처음으로 전 현직 스승들을 대상으로 대만불교연수를 다녀왔다. 1, 2차로 나누어 다녀온 이번 연수는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체험하려는 열기로 4박 5일 전 일정이 열기로 가득했다. 스승님들과 함께 수행한 교무들도 많은 것을 함께 배우고 나눈 뜻 깊은 시간이었다.



는 불교 문화다. 선불교적 전통을 고수하는 중국불교의 영향을 과감히 단절시키고, 인간 속으로 들어와 따뜻한 공동체를 이룬 대사의 높은 뜻에 다시 감탄한다.

아침 6시 30분에 서울 총지사에서 출발하여, 2시간 반을 날아 이국땅에 왔고, 월 들 없이 두 군데의 사찰을 둘러보았다. 더운 날씨와 강행군으로 조금은 피곤했지만, 모두들 만족스러운 첫 날을 보냈다. 오후 8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와 하루의 일정을 마쳤다.

4월 11일

타이페이에서의 아침을 맞았다.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보니, 모두들 출근 준비로 분주하다. 거리는 자투리보다 스쿠터들이 더 많다. 아니 자동차가 스쿠터를 뜰에 한 대 정도 끼어 있는 듯했다. 현지 가이

드의 말로는 타이완의 인구보다도 스쿠터의 수가 많다고 한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연수단은 대만의 중부지역 화롄에 위치한 자재공덕회를 방문하기 위해 타이베이역으로 향했다.

타이베이 도심의 기차역은 대규모 쇼핑몰과 같았다. 하지만 열차의 출발과 도착은 지하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지하철역과 똑같은 구조다. 하지만 간선 기차가 드나들어 선지는 모르지만, 공기가 답답하다. 우리나라의 새마을호 정도의 열차를 타고 우리는 타이페이를 빠져 나왔다.

화롄으로 가는 중 바다를 볼 수 있었다. 태평양이다. 바다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 중간 중간 세멘트 공장을 볼 수 있었다. 화롄 지방은 유명한 석회석 산지다. 석회석이 오래 묵으면 화강암이 된다. 화강암이 다시 오랜 시간을 지나면 대리석이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일직 중 대리석 계곡이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이기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까지 되었는지 궁금하다.

약 2시간 반을 이동하여, 화롄역에 도착했다. 조용하다. 우리나라 시골계 같은 느낌이다. 아침 무렵 오라카락 하던 비는 그치고, 열대의 햇살이 머리위로 내려온다.

점심공양을 마치고, 자재공덕회를 방문했다. 먼저 병원 앞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병원 로비를 통해 자재공덕회 본부인 정심당으로 이동했다. 병원 로비의 환자를 돌보는 부처님상이 모자이크화로 한쪽 벽면을 장엄하고 있었다. 병원의 자원 봉사자들이 매일 아침 이 불화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예불을 올린다 한다.

이곳은 자재공덕회의 본부로 쓰이는 정심당과 병원, 의과대학 등이 들어섰다. 역시 크다. 대륙이라 그런가? 다시 한번 고개개 가우동 해진다. 자재병원은 스님들과 빈민들에게는 모든 치료가 무료로 행해진다. 특히 외국인 스님들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곳 병원이 자랑하는 시설 중의 하나가 세계최대의 골수은행이다. 타이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골수가 필요한 환자들

에게 제공 된다.

자재공덕회 기념관은 지하층에 자리했다.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한다. 모두가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안내에 따라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증엄 스님의 출가와 구도, 자재공덕회의 조직구성 등을 이인옥 선생의 통역으로 들었다.

처음 전시관을 들어서 길어야 삼십분 정도면 관람이 끝나리라 예상했다. 아니었다. 전시관을 다 둘러보는 데만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 전시관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따라 자재공덕회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까지 제시한다. 특히 긴급 구호단체를 표방하는 자재공덕회는 아이티 대진전이 나자 바로 다음날 전세계로 현장에 도착했다 한다. 놀라움을 따름이다. 이곳의 스님들은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원으로 부터는 기본적인 것만을 제공 받을 뿐 모든 생활은 자신이 스스로 일구어 나가야 한다. 불자들이 내는 보시금도 반드시 사용처를 기재 해야만 받는다. 자재공덕회 긴급구호사업의 재원 마련 방법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자원재활용 사업이다. 지역의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환경도 살리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무의탁 노인들이 길거리를 헤매며 박스를 수집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다.

자재공덕회의 구제사업은 종교, 국경, 인종을 구별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대자 대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이다. 전시관을 둘러본 뒤 법당으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교회인 줄 착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기독교적이다. 전면의 불화는 증엄스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다. 관세음보살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자재공덕회 신도들의 눈에는 증엄스님은 이미 관세음보살이상으로 존재하는 듯 했다. 이 법당에서 한 가지 주목 할 점은 의자에 있었다. 절도하고, 경전을 불독하는 독서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든 것이 신기 할 따름이다. 공간의 다양한 활용이 눈에 들어온다. 연수를 마친 후 연수단은 자재공덕회로부터 약 30분 거리에 있는 '태로각' 대리석 계곡으로 향했다. 잠시



나마 연수의 부담을 놓고 타이완의 자연을 맞으려 간다. 계곡으로 가는 도로는 좁고 구불구불 하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길을 만들었는지 궁금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대륙으로부터 밀려 나온 장제스 군대는 여러 번 대륙으로의 복귀를 노렸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장제스는 유류 군인들을 동원하여 대만의 동서를 있는 도로를 만들고 명령한다. 수많은 군인들이 이 험한 협곡에서 목숨으로 길을 만들었다 한다. 제주도의 5.16도로가 떠오른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후 전국의 강대들을 국도건설단으로 동원 한라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든다. 조금은 다르지만 많이 비슷한 점을 느낀다.

협곡은 평균 수십미터에 이른다. 산 정상 쪽으로 갈수록 하얗게 배를 드러낸 대리석들이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계곡의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관광

객을 실은 차량의 엔진소리와 인파들로 자연의 소리가 묻힌 것이 못내 아쉽다. 관불을 마치고 저녁 공양을 위해 화롄역으로 갔다. 모두들 맛있게 공양을 들었다. 첫날에는 강한 향신료 냄새로 음식이 입에 낫설었다. 그래도 하루를 지냈다고, 이제는 먹을 만하다. 다시 2시간 반을 열차로 타이페이에 돌아왔다. 호텔에 들어서자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었다. 오늘이 대구, 경북, 대구 교구장 국광사 지공정사님의 생신인 것이다. 호텔 로비에서 간단히 케익을 자르고 스승님의 건강을 서원했다. 먼 길을 다녀왔지만 기분 좋은 피로가 몰려왔다. 내일은 타이페이를 떠나 대만의 남부지방으로 간다.

취재=김종열 기자
(다음호에 계속)



총기 41년 ·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 사 장 지 성
이 사 법 공
이 사 대 원
이 사 선 도 원
이 사 인 선
이 사 강 경 중
이 사 김 무 남
이 사 정 영 문

감 사 안 성
감 사 법 우
감 사 박 정 선
교 장 장 재 계
교 감 탁 상 달
사무국장 법 선
행정실장 석 동 훈
교직원 및 행정직원 일동



단음사 지 현 전수

삼위일체의 화합된 힘으로 일군 불법의 터전

4박5일의 일정으로 다녀온 대만 관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행은 근본이며 자비심의 실천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았지만 견학한 곳은 크게 세 곳으로 요약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뽐낼 실전하는 봉사단체인 자재공덕회, 사원의 장엄함과 웅대함이 교육 문화사업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활발히 포교의 중심에 서있는 중대선사.

세계 200여 곳에 도심 포교당을 건립하여 현대화된 건물과 시스템으로 이미 생활 깊숙이 불교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불심을 깊이 뿌리내리게 만든 불광사.

특히 이번 견학한 금광명사, 타이베이 도량, 난평 별원의 포교당을 포함한 불광사는 한결같이 도심 한 가

재양성에 중점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개산조인 성운대사의 높은 안목과 근본이념이 무엇보다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불교는 불자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불자들의 힘은 교도들을 이끄는 수행자의 힘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행자(승적자)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책임자의 선출 요건도 승랍이나 세수(世壽)가 우선적이 아니라 열정과 의지, 사회에의 기여도를 우선시하여 승가교육을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하였으며 승가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그것은 다시 사회교육, 신도교육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광사의 교육이념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교도들의 봉사정신이었습니다.

가느 포교당마다 똑같은 복장과 웃는 모습이 썩이나

대만 불광산사를 다녀와서

불광산사는 불광산교단의 중심 사찰이며 대만 남부 카오슝에 위치하고 있다. 신도와 승려 그리고 사원의 규모면에서 대만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찰이다.

자비전, 조산화관, 대웅전 및 불교대학 등은 대만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그 외 대만 전역과 홍콩, 하와이, 미국, 말레이시아 등 30여 개의 분원 있고 본원보다 규모가 큰 별원도 대만과 해외의 여러 곳에 있는데 미국의 서러사, 대북시의 보문사, 카오슝의 보현사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고향에 가진 전 방문한 카오슝의 난평별원 등은 모두 이 별원에 속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신도 조직으로 대만 전국에 400여개의 불광회 조직과 해외에 100개의 국제불광회가 설립되어 있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상은 내가 불광산사에 오기 전 인터넷이나 책자 등을 통해서 알고 있던 알략한 사전 지식이다. 하지만 내가 탄 버스가 불광산사



운천사 자인행 전수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가 어느 한 지역, 어느 개인의 불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불교로서 산사에서 사회로, 사원에서 가정으로 확대되어 불법을 실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정신과 마음을 통해 인간상호간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성운대사는 말하고 있다.

인간불교 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세상의 차별, 시기, 경시, 등을 줄이고 모두가 존중하고 융화되게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모두가 희망하는 세상을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상에 다가가는 것이 속세를 떠나는 것보다 중요

정신과 마음을 통해 인간 상호간의 화합을 이룬 '인간불교'

에 들어서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온 불광산사는 나의 알략한 지식을 비웃는 듯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본다.

4박5일 대만 일정 중 이틀을 불광산사에서 보냈다. 하지만 이틀만으로 불광산사를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물론 먼저 본 중대선사나 자재공덕원도 외형적인 시설의 관망이나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교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의 설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보고 대강 들어도 모자라는 시간이었지만 특히 불광산사에서 보낸 시간들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그곳 수행자들과 같이 동참한 법회나 발우공양은 아주 특이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커다란 목탁, 북, 죽비, 종 같은 각종 불구 소리에 실리는 그들 특유의 장단고저에 맞게 여러 수행자가 똑같이 하는 경전 독송은 비록 내용의 뜻까지 알 수 없지만 동참하는 내내 엄숙하고 마음 한편은 평안했다.

불광산사는 성운대사에 의해 1967년에 창건되어 출가대중의 도량으로 주지는 불광산교단 행정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무원회의 공개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991년부터는 신도조직 불광회를 설립하여 재가불자포교사 제도를 추진 재가불자들도 포교사가 되어 조직적인 포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광산사는 대나무 숲만 무성하던 황량한 터에서 대만 최대의 불교 사원이자 세계가 공인하는 불교성지로 발전하였으며, 또한 100여개가 넘는 해외의 포교당과 1300명이 넘는 승려가 수행과 포교를 하는 거대한 불교 조직을 갖추고 이제는 '인간불교' 운동과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 불법을 널리 알리며, 자비와 선행으로 사회복지자를 구현하며, 단체수행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화 시킨다"는 사대종지를 기본으로, 전 세계를 곳곳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인간불교 운동은 대만 불광산사가 제창하는 불교 현대화 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며, 특히 인간불교 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국제불광회의 승려와 신도들의 활동은 사회문제와 현대 문명의 병폐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사회공익단체들로부터 공감대 얻고 있다.

인간불교 운동이란 불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서, 이 시대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하고, 삶이 죽음보다 중하며, 이타가 자리보다 중요하고, 인간제도가 홀로 수행하는 독박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불교는 불교를 인간화, 현대화, 생활화하는 사회포교 활동이라고 강조하는 불광산사의 개산조 성운대사는 '부처님의 법을 우리들의 인생을 개선하는 기준으로 삼게 하며, 또한 불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불법이 생활의 근거가 되도록 하며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불교이다'라고 하며 6가지 인간불교 지침을 다시 제시 했는데 그 6가지는 즐거운 생활, 풍족한 물질, 자비와 도덕, 가족의 화목, 대승의 중생구제, 불국정도 실현이다.

대만의 불광산사의 인간불교 운동은 불교계에서 불광산사가 처음으로 하는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불교 운동은 이미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이미 널리 행해져 오던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불교의 역사에서 승려들이 신도들에게 해왔던 일이 모두 인간불교 운동을 실현한 것으로 특별히 "인간불교"라는 구호를 쓰지 않더라도 곳곳에서 이미 인간불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서 사원을 개방하는 신도들에게 사원을 개방하여 같이 수행하는 Temple Stay, 승려들의 사회사업 참여, 불교계 대학설립, 불교 방송국 설립, 도심 포교원 개설, 인터넷 포교당 개설, 사회복지시설 건립 등 불교가 빠른 속도로 현대화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인간불교 운동 실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광산사와 불다 기념관들 여러 곳을 둘러보러 다니는 내내 내 작은 가슴 한 구석은 먹먹했다. 물론 사원의 큰 규모나 불상의 웅장함에 감탄을 쏟아 냈지만 진작 부러운 것은 큰 사원의 규모나 거대한 불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의 실천력이었다. 우리도 경건이나 혹은 크신 여러 스승님께 "불교는 실천의 종교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또한 나도 부처님을 법을 전하고자 종단에 몸담은 교역자로서 화두처럼 "불교는 실천이다"고 수없이 외고 다녔다. 철저히 자비의 실천을 수행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불광산사의 성운대사와 그 수행자들을 보고 새삼 내가 뭘 해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대만에서 보내고 왔다.

종단의 든든한 뒷받침과 잘 교육받은 승직자, 참으로 복을 짓겠다고 실천하는 교도

운대에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양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을 망라하여 접할 수 있는 사회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인간불교를 추구하는 불광사 포교의 핵심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우리 종단의 교화방집과도 많은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미 몇 단계 앞서 나가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대의 종교가 생활과 떨어져서는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배우고 깨치는 것을 가장 근본으로 하는 것은 물론 불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 하는 시스템을 볼 때 우리도 각 사원의 여건에 맞춰 교육하는 시스템을 포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수행력과 실력을 갖춘 스님들과, 스님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즉 인

인상적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한 포교당의 봉사인원이 몇 백 명씩이나 된다고 하니 가히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실천행이야말로 보살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복을 많이 지어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절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절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그들의 마음에서 참된 보살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총지종의 교도들에게도 꼭 심어줘야 할 마음입니다.

교화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타성에 젖은 마음이 아니라 종단의 든든한 뒷받침과 잘 교육받은 승직자, 참으로 복을 짓겠다고 실천하는 교도의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배우고 온 계기가 되어 감사할 따름이며 앞으로 교도들과 더불어 더 전력투구하는 마음으로 교화에 임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만 보 사

주 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백 월 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42-527-5470

법 황 사

주 교 : 전수 해안정

☎ 062-676-0744

해 정 사

주 교 : 정사 서 령
전수 해원정

☎ 043-256-3813

흥 국 사

주 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충청 · 전라 교구 일동



불서 “기복(祈福)은 잘못이 아니다, 욕심이 나쁠 뿐. 누구든 좋은 복을 구하라!”

《걱정 말고 기도하라》/법안 지음/김성희 그림/도서출판 은행나무 간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와 고민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줌으로써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 온 논산 안심정사의 법안스님 첫 예제인 《걱정 말고 기도하라》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지난 2011년 불교TV를 통해

방영된 법안 스님의 생활법문 내용을 수정하고,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없었던 재밌는 우화와 에피소드를 곁들여 대중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편집한 것이다. 또한 글과 잘 어울리는 중견 서양화가 김성희 화백의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림 15점을 함께 실어 시각적이고도 문학적인 감수성을 더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운명 탓, 팔자 탓을 하지만, 실제로 이 모두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안스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고난 운명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없다”는 것. 따라서 번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아무리 정해진 운명이라도 바꿀

수 있다. 반대로 탐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모여 불행한 것으로 이러한 번뇌가 모여 얹어 되어 운명을 나쁜 쪽으로 이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현재, 혹은 미래의 운명은 하나로 이어지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기도와 선행을 통해 과거의 업을 녹이고 현재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법안스님 자신도 7년간 폐결핵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우연히 약사 기도를 접하고 수십 년간 확산과 민음과 정성으로 정진한 결과, 마침내 자신의 병마도 극복하고 증상의 병도 고치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 신유(神祐) 능력을 알게 되었다. 책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불치병을 고친 스님의 신기한 일화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과 부귀와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좋은 복을 구하는 것, 즉 기복(祈福)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욕심이 나쁠 뿐이다.

특히 스님이 강조하는 ‘복이란 좋은 인연’을 의미한다. 좋은 인연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복을 소중히 여겨 잘 빌고, 잘 아끼고 잘 나누면 세상이 맑아지고 좋아져 현실에서 불국토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스님은 끝으로 “불보살님들을 감동시키고 싶으면 자기 자신부터 감동시키도록 하세요.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며 자기 자신의 불성을 찾으라 강조한다.

김종열 기자

불자생활법률



아들의 이름이 천박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개명이 가능한지요?

저는 늦게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개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커가면서 이름으로 인하여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사람의 성명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함부로 고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남독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의 기준과 관련하여 관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나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패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범죄에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다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결정)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 아들의 이름을 고치려면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改名許可申請)을 하면 되고, 위 관례의 개명허가 기준에 따르면 개명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읍, 면장에게 개명신고(改名申告)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113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참고로 법률상의 이름을 개칭하는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명허가신청은 부(父) 또는 모(母)등 이해관계인이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 하동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596-4600)

총지동의보감

심한 임덧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임덧은 임신을 하면서 산모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임신초기 6주에서 16주사이 에 나타나며 위장장애와 정신적인 불안, 어 지러움 등을 동반하게 되며 대부분 태반이 완성되어 태기(胎氣)가 안정되는 15주이후가 되면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심할 경우 임신기간동안 거동 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임원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임신의 기쁨을 맛보지마자 산모에게는 크고 작은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임덧은 신경이 예민한 사람, 남에게 의지 하려는 경향이 강한사람, 좋은 환경에서 자 라 사람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며 평소 비만한 여성들 중 습담(濕痰)이 몸에 많이 정체되어 비위장기능이 약해진 여성들에게서도 나타 납니다.

증상으로는 속 울렁거림, 구토, 어지러움, 침과 담액을 토함, 먹지 못할, 얼굴색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구 토가 심하거나 이로 인한 어지러움, 체력저하 등이 있을 경우 태아에도 문제를 줄 수 있어 태기를 안정시키면서 약해진 소화기능을 회 복해 주는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임신유지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료는 산모의 체력과 증상의 허실을 살펴 허증일 경우에는 침과 뜸을 병행하게 됩니다. 침은 주로 임신에 관련된 임맥(任脈)과 비위 경(脾胃經)을 위주로 자극하게 됩니다. 평소 비위장이 허약하거나 체력이 약한 여

성들의 경우 비위장을 보강하여 위로 상승하 는 기운을 조절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예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울제로 인 해서 팔인 간의 열을 조절해 위장을 안정시키 게 됩니다.

인체에 담과 습이 많아 비위의 운화(運化)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임신 중 한 음식이나 밀가루, 기름진 음식의 섭취 등을 제한해야하 며 정제된 기열을 풀어 원활한 순환을 돕고 담습을 풀어 비위기능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임덧은 치료에도 임신부 스스로가 임신 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 정신적으로 긴 장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아 특히 초임부들에게 발병률이 높습니다.

하여 임신 후 생리적인 변화와 신체의 반응 들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긍정 적인 마음으로 즐겁고 여유 있게 생활해가는 것이 중요함입니다.

음식은 가능한 싱겁게 섭취하고 너무 기름 지거나 폭식을 하는 것은 위장장애를 유발해 구토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은 조금씩 여 러 차례 나누어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금씩 여 러차례 나누어 복용하면 약의 흡수도 돕고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숙
수석부회장: 보 덕 계
노 진 숙
총 무 : 이 인 성
복 지 원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김 수 자

충청전라교구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종 신정회 일동

풍경소리

가엾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란

남에게 준 돈은 반드시 돌려받는 것인 줄은 알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는 받아 줄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며,

가엾은 사람이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줄은 알면서도
자신에게도 또한 늙음과 병고와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도현 / 재가수행인

참 행복

다른 이의 삶이 행복해 보일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곳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괴로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이의 행복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허주 스님 / 대구경복 풍경소리 대표, 은적사 주지

이달의 사진

도 반



사진= 타이완 김종열 기자

VISUAL
불교충전

제35화

최후에 나를 따르는 것은
마음뿐이므로 마땅히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뜻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글. 그림/정수일
http://
www.drawing라울라.kr

부처님의 마음

중생의 마음



내용참조: 불교충전 p418 덕행편 1절 3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제품 종류

- 된장 1Kg : 20,000원
- 간장 1.8L : 10,000원

제79회 춘계강공 특집



밀인사 원당 정사

I. 서론

불교의 구경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고타로부터 해탈이라고 한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생·노·병·사 등의 인생의 현실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고타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찾자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추어 고타로부터 해탈하여 안락하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수행에는 난행문과 이행문의 두 가지 길이 있다. 난행문은 자력적 성격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해탈하는 것이라면 이행문은 타력적 성격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구제의 구제력에 의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길이다. 중생들을 고난과 역난에서 건지겠다는 불·보살님의 중생구제의 본원력을 믿고 이에 의지하는 타력적 성격의 신앙으로는 정도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미륵신앙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신앙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으로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해탈케 하는 서원을 세운 관음보살의 본원력과 위신력을 믿고 의지하는 관음신앙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승경전에서 관음신앙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관음보살은 위신력을 갖추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들을 고난과 역난에서 벗어나게 하여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다고 설하고 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자재보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여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보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다고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음신앙 고찰

설하고 있다. 이처럼 관음보살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로 널리 신앙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밀교 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은 관자재보살의 육도중생 구제의 대비원력과 위신력을 설하고, 세존께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은 인연과 육자대명다라니의 의미와 지송공덕에 대하여 밝힌 경전으로 관음보살과 육자대명다라니가 결합하여 변화된 밀교의 관음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을 통하여 관음신앙의 밀교적 성격에 대하여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인도에서 관음신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인 기원후 1-2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초기 관음신앙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전으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이다.

인격신 이슈와라(Iśvara)의 절대자의 개념을 관자재보살의 명칭에 수용하여 관음신앙을 전개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기원은 석가세존이 성불을 하였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 자비의 덕을 갖춘 보살신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응화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응화신의 근본은 석가세존이 본존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응신설은 밀교에 이르러 극대화 되어 모든 불보살의 근본은 대일여래라 하여 관음도 바로 대일여래의 응현이라고 보고 있다. 관세음보살이 신통력과 지혜와 자비의 방편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은 법신불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대승 보살사상의 핵심은 이타에 있으며 관음은 자비의 대표 보살이다. 따라서 대승불교의 핵심 신앙으로 관음신앙이 있는 것이다. 관음신앙은 주로 현세적 고통을 구제해 준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Aure Stein)에 의하여 발견된 산스크리트 불교문헌에서 성립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길기트 산스크리트 문헌은 서지학적 입장에서 7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승장엄보왕경』도 이 문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전의 성립시기를 6세기 이전에 성립하기 시작하여 10세기에 완성한 것으로 결정짓기도 한다.

『대승장엄보왕경』은 범본원본과 티베트역과 한역이 현존하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계승본과 산문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전의 산문본은 야란타라국의 밀집사 출신 삼장사문 천식재가 한역하였다. 천식재는 980년에 중국에 와서 1000년에 입적하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대승장엄보왕경』을 번역한 것으로 보아 10C 말에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티베트역은 8세기 초 인도학자 지나미트라(jinamitra)와 다나시라(Dānaśīla) 그리고 티베트 번역가 예세대(Ye ses de) 등이

제재장보살의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은 인연을 묻는 질문에 의해서 부처님 자신이 과거세에 육자대명다라니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던 인연과 그 공덕을 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4권 중에서 1권에서 3권 중간까지는 관자재보살의 위신력 및 공덕과 『대승장엄보왕경』을 설하는 공덕 등이 실려져 있다. 육자대명다라니에 관한 내용은 주로 3권 말에서 4권에 걸쳐서 실려져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는 관자재보살의 여러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관자재보살은 중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대위신력을 지닌 시무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이름이 불멸될 뿐 이미 과거집전에 성불한 부처이다. 법계에 상주하는 법신불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대비방편으로 보살의 몸을 나쁜 것임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회한 오백삼주의 본성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음신앙은 기원 후 1세기 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간다라(Gandhara) 지방에서 발견된 관음보살상과 함께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원후 1세기 경부터 전개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음신앙의 또 다른 기원은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자재보살의 원어는 아발로키테슈와라(Avalokiteśvara)이다. 원어는 아발로키테(Avalokita)와 이슈와라(Iśvara)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세간을 관하여 보는 신' 또는 '현상세계의 최상의 주재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이슈와라(Iśvara)는 '자재신' 즉 힌두교의 절대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힌두교의

일심칭명의 공덕으로 고난과 역난에서 벗어나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신통력과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여 줄 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방삼계에 보문시현의 신통력으로 여러 가지 몸으로 응현하여 설법하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였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다양한 응신으로 출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은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33응신으로 보문시현하며, 『수승경』에서는 32응신으로 나타나며,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20신으로 응신하는 모습을 설하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의 성립시기는 인도 카스미르의 길기트(Gilgit) 근방에 있는 탐형의 구조물 속에서 1931년 7월 슈타인(Sir

함께 번역하였다.

육자대명다라니의 유래를 밝히는 또 다른 문헌으로 『마니카람』이 있다. 이 경문은 티베트의 『관음경』이라 하며, 티베트의 제5대 총제관포왕(Sron btsain sgam po)의 유언을 모아서 기록한 티베트불교의 보전이다. 이상의 유래에서 살펴보면 육자대명다라니의 성립시기는 7세기 초의 『마니카람』의 성립을 토대로 하여 차츰 10세기 말에 『대승장엄보왕경』이 번역되면서 구제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육자대명다라니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세존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제재장보살의 청에 의해서 설하신 내용이다. 부처님이

또한 관자재보살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여 나타나 일체 중생들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여, 무량수예를 보고 법을 듣게 하여 모두 보리도를 이루도록 한다고 설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자재보살의 중요한 성격은 육자대명다라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대승장엄보왕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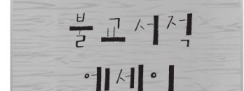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관음보살의 위신력을 빌어 고통에서 해탈하려면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하라고 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하는 대신에 관세음보살의 미묘본성인 연인 '옴 마니 반메 훔'의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을 강조하고 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이 관음보살을 칭명하는 공덕과 다름이 없음을 설하며, 관자재보살과 육자대명다라니가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으로 관음보살의 위신력에 힘입어 현실적인 고난과 역난에서 해탈하여 복득을 성취하는 현세적 구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다라니가 지니는 공덕의 힘으로 삼마지(Samadhi)를 이루어서 반야지혜를 증득하여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여 즉신성불하는 출세간적 공덕까지도 성취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염라대왕은 없다 마음만 있을 뿐



그림엽 붙여본 삶과 죽음의 안에서 <티베트 사자의 서>

예전에 출간했지만 여전히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책들, 스테디셀러를 중심으로 '불교서적 에세이'를 꾸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출간돼 대중의 호응갑스런 관심에서는 멀어졌지만 꾸준히 잘 팔리는 책들은 나를 가치를 확인 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흠족 보석을 캐는 심정으로 찾아내 리뷰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쓴이 말

티베트의 성자 파드마삼바바가 쓴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음을 정도의 기간입니다. 후손이 끊어지면서 망자는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첫 번째 빛이 나타나니 대강렬한 이 빛을 알아채면 해탈을 얻고,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은 20세기 초에 티베트에서 서역으로 번역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실리학의 대가 칼 융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현대 실리학에도 공헌했으며, 최근 티베트 불교에 대한 서양인의 폭발적인 관심의 촉매제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죽음은 네 과정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임종

다음은 임종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무의식에 빠졌던 의식이 갑자기 아주 맑은 의식으로 깨어나는 단계입니다. 이때 망자는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걸기도 하면서 자신의 유체 결을 뚫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빛이 나타나는데 이 빛은 앞에서보다 약하기에, 잡제의 의식 표출의식이 모두 돌아온 망자가 이 빛을 알아채지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상중의 단계'입니다. 이때를 진정한 죽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간 지내는데, 실상중과 다음에 나오는 투생중이 이 49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의식은 이미 육신을 벗어났고, 이제 자기 죽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의식체는 중음세계를 떠돌며 환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갖가지 색상과 밝고 어두운 빛과 보고, 형상을 갖춘 많은 불보살과 신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업력이 이끌어진 환상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투생중 때 영혼은 비로소 완전한 죽음의 여정에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나날에 걸쳐 쫓겨나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두려기 일반적이며 죽음과 연관 지어 떠올리는 염라대왕과 업의 재판도 이때

나타나는 형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망자는 49일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자신이 환생할 곳을 찾게 되는데 이때 검은색이나 안개를 찾아보면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보석으로 생긴 여러 층의 신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자신의 의식상태의 영향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래기나물만 먹으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시래기나물만이 최고의 음식인 것처럼 아무리 천당이 좋다고 해도 자기의 의식에 따라 검은 지옥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으므로 결국 모든 선택은 현재 의식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세기의 고승 파드마삼바바가 쓴 《티베트 사자의 서》는 자정 황당하고 흥망기러로 전락하기 쉬운 죽음의 세계를 깨달을 것과 연관시켜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의 매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임종중의 첫 단계에서 체험한 심층의식을 개발하면 첫 번째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함께 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탈을 얻게 되면 외로움과 두려움, 쫓김과 공포로 기화된 험난한 죽음의 과정을 겪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파드마삼바바는 내내 친절하게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상중이후 투생중에서 경험하는 환각을 자신의 업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직각하는 것입니다. 환영을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꿈이라는 걸 인식하면 강도에게 쫓기면서도 나름 여유를 갖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문화를 따라 같은 종류의 광경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 또한 죽을 후 겪는 경험이 결국 자기에게서 나온 것임을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신자들은 사자 쓴 저승사자나 염라대왕, 부처님 등의 형상을 보는데 반해 기독교인들은 천사나 악마를 보게 되는데, 이런 차이점을 보더라도 죽음에서 만들어낸 환상이 결국은 자신의 업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우리가 지금 가진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매순간 현재의 삶의 성숙에 의해 해탈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었습니다. 다만 면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죽은 이를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산 사람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교>

총기 41년 불교총지중 대만 불교연수기

